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10)

배 순 덕

서태후는 청나라의 9대 황제인 함풍제(咸豐帝)의 측실이다. 황제가 죽자 세살난 황태자를 동치제(同治帝)로, 그 십년 뒤에는 다시 조카를 광서제(光緒帝)로 즉위시키며 궁정을 좌지우지해 오다 청일전쟁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자금성을 떠나 이화원에 은거했다.

그 후에 다시 정변(戊戌政變)을 일으켜 잠시 정권을 잡는 듯하다가 西安으로 도망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껍데기뿐인 중국을 末代황제 溥儀에게 넘겨주고 숨을 거두었다.

북경시의 서북부 교외에 있는 커다란 공원인 이화원은 이러한 서태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백삼십칠헥타아르나 되는 공원의 총면적 중에 호수가 사분의 삼을 차지한다. 호수는 昆明湖라는 이름의 인공호수이고 그 맞은 편에는 호수를 팔 때 나온 돌과

흙을 쌓아서 만든 만수산이라는 인공산이 있다.

원래 이화원(頤和園)은 팔백여년 전인 1153년에 축조되기 시작한 金朝의 궁전이였다. 그러던 것을 명나라에 이르러서 몇채의 건물을 더 증축하여 호산원(好山園)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후 다시 청나라의 건륭제(乾隆帝)가 昆明湖를 확대하고 별궁으로 개조하였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이 터지고, 텐진 조약의 비준을 강요하던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팔만이 북경을 공략하면서 이화원은 형편없이 파괴되었다. 그 후 서태후는 해군의 군함건조비 팔백만량을 유용하여 이 별궁을 재건했다.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원인 중에는 그 같은 군함 건조비의 유용이 단단히 한 몫을 했다.

황실의 권위와 사치를 지키려는 여인의

허영은 결국 국운의 쇠퇴와 황실의 자존심을 맞 바꾼 셈이 되었다.

1900년 의화단사건이 터졌을 때 이화원은 또 다시 연합군에게 점령됐고 폐허화되다시피 했으나, 이번에도 서태후는 국고를 축내가며 재건에 심혈을 기울였다. 황제가 정치를 하던 인수전과 서태후가 일상생활을 했던 낙수당, 서태후의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은 칠십만량을 들여 지었다는 덕화원, 예물을 보던 불향각, 광서제가 십년동안 유폐되어 있었던 옥란당, 이화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지혜해 등 이화원은 황제가 정무를 보던 구역과 일상생활을 하던 구역, 그리고 유람을 즐기던 구역 등으로 구분이 된다.

서태후가 살았던 낙수당(樂壽堂)에는 이화원의 명물인, 길이가 칠백이십팔미터나 된다는 긴 회랑(回廊)이 있다. 이것은

그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회랑의 천정을 가로지르는 대들보에는 같은 크기의 그림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내용이 각기 다른 그 그림 하나 하나는 삼국지의 이야기와 이화원의 풍경들이라고 한다.

昆明湖 호수 위에는 서태후가 타고 놀았다는, 흰 대리석으로 만든 커다란 배(石船)가 있다. 원래 건륭황제가 만들어 띄어 놓았다는 이 배에는 두가지의 함축된 뜻이 담겨져 있다. 둘은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므로 자신의 통치도 것처럼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개인의 욕망에서고, 또 하나는 백성은 물이고 자신은 배(船)라고 여겨 물은 배를 뜨게 할 수도 뒤집을 수도 있으므로 백성을 잘 다스려야겠다는

▶ 北京 頤和園의 인공호수



통치자로서의 현명한 의지가 담겨진 것이라고 한다.

위로 향한 아치형의 대리석 기둥과 기둥 사이 벽에는 정교한 꽃무늬가 현란하게 아로 새겨져 있고, 호화롭기 그지없는 그 배의 이층에는 사진사가 궁중의상을 비치해 놓고 사람들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그 곳에서 옷을 빌려입고 황제나 황후의 흉내를 내며 기념사진을 찍는다. 누구든지 입장료만 내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화원과 쉽게 입어볼 수 있는 황제의 옷, 서태후가 국운을 기울게 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황실의 권위는 청의 멸망과 함께 역사앞의 물거품이 되었고, 지금은 그 권위의 껍질만 남아 중국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왕부정가(王府井街)는 중국의 명동 격이다. 백화점, 옷가게, 약재상이 있고 서점, 레코드가게, 사진관, 도장가게, 공예품점,

토산품점 등 갖가지의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상점들 못지않게 사람 또한 많다. 왕부정 거리에 발 디딜 틈없이 북적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의 지방민들과 외국관광객들이다. 북경에서 제일 변화하다는 그 거리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다. 허가받은 차나 자전거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토산품점에는 북한산(産) 산삼이 진열되어 있고, 약재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많이 사간다는 동인당(同仁堂) 한약방보다 조금 싼 값으로 우황청심환을 판다.

밤의 북경역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들 남루한 옷차림에 돛자리나 보따리를 몇개씩 들고 있다. 일행이 없이 혼자인 사람도 있고 일가족이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여행객들이 아니라 고향을 등진 떠돌이들이다. 소주(蘇州)나 항주(杭

▶ 연당이 아름다운 이화원(頤和園)의 정원.
건륭황제는 강남의 풍물을 좋아하여 화북 지방인 이화원의 정원에서도 강남의 분위기가 풍기도록 꾸며 놓았다.



“광장 프트머리에 있는 화장실 뒷벽에는
천안문 사태를 비판하는 글귀와 피투성이의
주검들을 찍은 사진이 나붙어 있었다.
역광장의 노숙자, 화장실 뒷벽의 낙서,
이화원의 젊은 여인들.
변화하는 중국, 老 대륙의 일천년 고도에
부는 근대화바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州)의 기차역에서도 보아왔던 광경이긴
했으나 북경역 광장에는 유난히 더 많았
다. 그들은 거적을 깔고 웅크린 채 누워있
기도 하고 자기 짐에 기대어 잠들어 있
기도 했다.

그들 사이를 헤치고 광장을 가로지르
는 데 어둠 속에서 일단의 군인들이 한 젊은
이를 끌고가는 모습이 보였다. 광장 프트
머리에 있는 화장실 뒷벽에는 천안문사태
를 비판하는 글귀와 피투성이의 주검들을
찍은 사진들이 나붙어 있었다.

문득 낮에 보았던 이화원에서의 한 풍경
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낙수당의

회랑에 걸터앉아 한가로이 화장을 고치던
젊은 여인 둘이 있었다. 흰색 하이힐에 무
릎이 보이는 스타킹, 빨간 원피스를 입고
한 여인은 짧은 커트머리를 했다. 손바닥
만한 거울을 들여다보며 연신 입술을 바르
고 머리를 빗고… 한참을 지켜봤으나 여인
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역광장의 노숙자와 화장실 뒷벽의 낙서,
이화원의 젊은 여인들- 변화하는 중국,
노(老)대륙의 일천년 고도에 부는 근대화
의 바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72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

국민
식생활지침

- ①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읍시다.
- ②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읍시다.
- ③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읍시다.
- ④ 과음을 삼갑시다.
- ⑤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합시다.

〈보건사회부〉